

보도일시	2021. 10. 23.(토) 배포 즉시		/ 총 1쪽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	과 장 심우섭 사무관 연현석	044-202-8965 044-202-8969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, 금천구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한 조사 및 엄중처벌을 지시

-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0.23.(토) 15:30분경, 소화약제(CO₂, 이산화탄소) 누출되는 사고*가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데이터허브센터를 찾았다.
- 안경덕 장관은 사고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펴 본 후, 소방청·경찰 등과 협력하여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.
-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‘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’를 구성·운영하여 사고상황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공유하는 한편,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.

* (사고개요) ‘21.10.23.(토) 08:50경, 서울 금천구 가산데이터허브센터 지하에서 소화약제(이산화탄소)가 누출되어 사망 2명, 중상 2명, 경상 17명이 발생